

## 애염명왕 좌상

애염명왕은 불교의 오대명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끊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그 표정은 시뻘건 얼굴에 치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의 머리 부분을 본뜬 관을 쓰고 있고, 여섯 개의 팔은 각각 다양한 의식용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애염명왕이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애염명왕상의 팔 갯수는 두 개, 네 개, 여섯 개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섯 개인 모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정복을 상징하는 연꽃 봉오리와 환상을 끊어내는 봉 모양 도구인 금강저 등입니다. 이 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몸체와 머리는 통나무로 만든 후 잘라내고 다시 팔과 다리를 결합하는 와리하기즈쿠리라고 하는 새로운 조형 기법으로 만든 초기 작품의 예입니다. 닌나지 절은 진언종 오무로파의 본산이며, 애염명왕은 진언종 등의 밀교에서 중요한 신입니다. 이 상은 애염명왕 조각상으로는 특히 오래되어 헤이안 시대의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작품입니다.